



신라문화원 경주 남산 불적 답사 회원들이 남산의 유적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남산의 들판을 걷고 있는 답사 회원들



황복사에서 답사 회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답사 회원들이 남산의 폐사지를 살펴보고 있다.

남산, 신라 천년 불교를 지탱한 수미산

狼山

남산에서 바라보는 남산

천년 고도 경주에는 오악이 존재한다. 동악 토함산, 서악 선도산을 비롯해 남악 남산, 북악 금강산, 중앙의 남산이 그것이다. 이들 가운데 남산이 중앙의 위치에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 산의 중요성을 넉넉히 짐작할 수 있게 한다.

신라문화원(원장 진병길)의 10월 경주 남산 불적 답사는 오악의 중앙에 있는 남산을 순례하는 것으로 진행했다.

옛 경주의 중심 '남산'

최민희 신라문화원 부설 연구소장에 따르면 경주의 지형 조건이 문화 형성에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내산과 외산으로 나뉘는 경주의 산악지형은 국도 수호의 방벽 역할을 했으며, 특히 신라 왕궁과도 가까운 거리에 있었던 남산은 여러 의미에 있어서 진산의 역할을 했다.

실제 삼사(三祀) 가운데 대사(大祀)를 받았던 산이 바로 남산이었던 점에서도 이 산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남산을 중심으로 그 주변에 크고 작은 유적들도 모두 산악신앙과 연관해 자리 잡았다. 신라의 진호국이 도량으로서 큰 역할을 담당하였던 사천왕사가 남산의 남쪽에 있으며, 왕실의 기복을 위한 원찰인 황복사는 산의 동북쪽에 위치해 있다.

최 소장은 "사천왕사와 황복사가 있었다는 점은 신라가 남산을 얼마만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보여주는 단편적 근거"라면서 "무엇보다도 진호 국가의 이념과 산악신앙이 불력(佛力)의 가호 속에 있었던 신라사회에 있어서 남산은 바로 왕실의 안녕과 기복을 위한 중심지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 소장은 "남산이 단순히 호법적인 성격에만 머물지 않고 산 자체가 신앙적 차원으로까지 승화했다는 점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남산을 신앙적으로 숭상했다는 증거는 '남산(狼山)'의 지명 유래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 구마라집 한역한 <불설미륵대성불경>에는 미륵불이 중생, 제자 등과 함께 도래해 오르는 산이 바로 '남적산(狼跡山)'이다. 이곳에서 미륵불은 육만 억 년 동안 세상에 머물며 중생을 불쌍히 여겨 그들이 법안을 얻게 한다. 이렇듯 남산은 신라의 건국 사상과 이념이 불교와 매우 밀접하게 연관돼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초이다.

불교, 신라와 경주를 지키다

남산에서 주의 깊게 살펴볼 곳은 바로 사천왕사와 망덕사다. 현재 사천왕사와 망덕사는 폐사지로서 당시 유구만이 남아있다.

두 사찰의 유래는 밀접히 연관이 있다. 사천왕사의 경우 문무왕 19년(679)에 창건한 것으로 당나라가 그들의 도독부 군사를 공격한다는 핑계로 50만 대병을 일으켜 신라를 공격하자 문무왕은 부처님의 힘으로 그들을 물리치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이 같은 사실이 당나라에 알려지자 곧 사신 악봉구를 보내 이를 확인하게 한다. 신라는 사천왕사 아닌 새로 지은 다른 사찰을 보였는데 악봉구는 "이것은 사천왕사가 아니다. 망덕요산의 절이다"라고 하며 끝내 들어가지 않았고, 신라는 그에게 황금 1천냥을 주었다.

매수된 악봉구는 당으로 돌아가 "신라가 천왕사를 창건하고 황수(皇壽)를 받고 있다"라고 보고했다. 즉 본의는 아니었으나 망덕사는 당나라 사신을 속이기 위해서 창건된 사찰이 됐다.

그 만큼 사천왕사는 남산에서 가장 중요한 사찰이다. 실제 사천왕사는 신라 철처가람지의 하나로 선덕여왕이 도리천이 있는 곳이라 하여 신성시하던 곳이다. <삼국유사>와 <삼국사기>에 나타난 선덕여왕의 유언에서 이 같은 사상이 그대로 묻어난다. 선덕여왕은 유언으로 "자신이 죽으면 도리천에 묻어 달라"고 했으나 신하들은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자 여왕은 도리천이 남산의 산정임을 일러준다.

사천왕이 거주하는 사찰은 불교세계에서 사바세계의 중심지로 보고 있는 수미산의 종턱에 위치하고

미륵불이 도래해 설법한다는

남적산이 '남산'의 지명 유래

경주 오악 중 중앙에 위치해

신라 문화 발전에 중요 지점

왕릉·사지 등 당시 영화 증명

있는 곳으로 그 꼭대기에 부처님의 나라인 도리천을 두고 있다. 이 같이 선덕여왕릉과 사천왕사의 설화에서는 서라벌의 가운데 산인 남산을 수미산으로 생각하려 했던 신라 불국토 사상의 일면을 살펴볼 수 있다.

최초의 신라 쌍탑가람 '사천왕사'

사천왕사는 폐사지이지만 문화재적으로 그 가치가 높다. 특히 가람배치에서 이 같은 점이 잘 나타난다.

통일 전의 신라 사찰들은 모두 금당 앞에 1기의 삼층 또는 5층석탑을 세우는 일탑 일금당(一塔一金堂)식의 사찰조영 방식을 따르다가, 통일 이후에는 금

당을 중심으로 동서 양면에 쌍탑을 세우는 쌍탑가람식으로 변모한다. 사천왕사는 통일 이후에 발전하는 쌍탑가람식에 의한 최초의 사찰이다. 가람배치는 금당을 중심으로 동탑과 서탑이 있고 북방으로는 좌경루와 우경루가 있어서 마치 본존불이 안치된 금당을 중심으로 사천왕이 배치된 것과 같은 특이한 가람형태를 이뤘다.

이제는 남아있지 않지만 1922년 발견된 조선총독부의 <고적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우수한 당초문의 외당과 사천왕 부조의 전이 출토됐다고 한다. 선덕여왕 때에 사적을 남겼다고 전하는 양지 스님의 절자 품이 아닌가 추정할 뿐이다.

현재 이곳의 사지는 초석 등 기본구조는 원위치에 남아 있는 편이나 일제강점기에 금당지와 강당지 사이를 가로지르는 철로가 개설됨으로 하여 사지에 치명적인 상처를 줬다. 국방 사찰이라 할 수 있는 사천왕사와 남산의 지맥을 갈라놓은 것이다.

이에 대해 최 소장은 "외적을 방어하는 사천왕을 모시는 사천왕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일본인들이 의도적으로 지맥을 갈라놓은 게 지배적인 의견"이라면서 "현재도 철길이 남산의 남단에 존재하고 있고 사천왕사지 앞으로 도로가 가로질러 나있는 관계로 유적지 보존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남산의 부처님을 품은 衆生寺

현재 남산에는 중생사(衆生寺)라는 재미있는 이름의 사찰이 있다. 주변의 유물로 보아서 이 일대에 상당한 사적을 지닌 사찰이 있었던 것으로 짐작되나 원래 사명(寺名)은 알 수 없다. 근세에 이곳에 사찰이 새로 건립되어 최초에는 선덕사(善德寺)라 하였으나 근래에 새로이 중생사라고 고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곳 일대는 남산의 중간 지점으로 석불을 위시해

불대좌 등이 산재된 장소이다. 뿐만 아니라 문무대왕의 화장지로 추정된 능지탑이 위치한 유서 깊은 곳이다. 중생사 대웅전으로 서쪽 약 110m 지점 발 뚝에는 하반신이 흙 속에 매몰된 채 머리 부분이 소실된 석불입상이 있다. 불상의 총 높이는 220cm이고 보살상의 머리 부분은 보관형태를 나타내어 높이 솟았고 보관 아래에는 화문의 테를 돌렸다. 큰 귀에 풍만한 얼굴 모습은 보살상이면서도 위엄을 지닌 당당한 모습이다.

또한 신라시대로 추정되는 마애삼존상을 중생사에서 만나볼 수 있다. 이 있다. 이 불상들은 문무대왕의 화장지로 추정되는 능지탑과는 남북으로 250m의 거리를 두고 일직선상에 놓여 그 제작 동기가 의도적이었음을 시사한다.

이밖에도 답사단은 선덕왕릉과 진평왕릉, 황복사지, 보문사지들을 둘러보고 일정을 마무리했다.

신라의 산악신앙을 만날 수 있던 남산. 앞으로 막힌 모습과는 달리 남산에 담긴 신라인들의 불심은 태산보다도 높았다. 신종일 기자 motp79@hyunbul.com

현대불교신문사 · 신라문화원 11월 경주 남산불적답사

- 주제 : 신라인들의 수미산을 찾아서
- 일시 : 11월 2일 토요일 오전 9시 출발
- 준비물 : 간편한 복장, 도시락, 필기구
- 동참 비용 : 2만원 (회원, 학생 1만8천원)
- 문의 : 054)774-1950, www.silla.or.kr

현대불교 창간 19주년을 축하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34대 총무원장

자승 스님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호국참회
평화도량

삼각산 도선사

서울 강북구 우이동 264번지 홈페이지 : www.dosunsa.or.kr 전화 : (02)993-3161 ~ 3 팩스 : (02)993-3164